

용인세브란스병원 NEWSLETTER

NEWS

- 분만 3,000례 달성
- 고압산소치료실 개소
- 2026년도 일반직 관리자 워크숍
- 질 향상 활동 및 환자안전 리더 워크숍
- 산부인과 박주현 교수, 로봇수술 개인 1,000례 달성
- 대한심혈관중재학회 경인지회 라이브 시연
- 2025년도 의약품 부작용 우수 보고 시상

- [섬김과 나눔] 이영은 후원자, 1억원 기부
- 가정의 달 기념 행사
- 입원 의학과 임상강사 프로그램 개설
- 외과부 노승윤 교수, 두산연강 간담체외과학술상 수상

INFO

- 신규 협력 의사 소개
- 기부금 모금 현황



분만 3,000례 달성

- 저출생 흐름 속 지역 고위험 산모 · 미숙아 진료 거점 자리매김



우리 병원은 지난 2020년 4월 첫 분만 이후 6년 만에 누적 분만 3,000례를 달성했다.

지난달 21일 병원 1층 로비에서 열린 기념행사에는 박진오 병원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박주현 산부인과장, 산부인과 허혜원·장진범 교수 등 내외빈이 참석해 성과를 함께 축하했다.

3,000번째 출생아는 지난 4월 8일 오전 10시 21분 제왕 절개를 통해 태어난 3,160g의 여아다.

용인세브란스병원은 개원 당시부터 전문의 중심 체계를 바탕으로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신생아 전담 교수뿐 아니라 분만실·수술실·병동·진료지원 간호사 간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안정적인 분만 및 고위험산모·신생아 중환자 진료를 이어왔다.

전국의 분만 가능 의료기관은 2014년 675곳에서 2024년 445곳으로 10년간 34.1% 줄어들며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도 용인세브란스병원은 타 의료기관에서 전원된 산모를 적극 수용하며 경기 남부 지역의 고위험 산모와 미숙아 치료를 담당하는 거점 병원 역할을 하고 있다.

박진오 병원장은 기념사에서 “분만 3,000례 달성은 저출생이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료진이 한마음으로 노력해 이뤄낸 뜻깊은 성과”라며 “용인시 유일의 대학병원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산모가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산부인과 장진범 교수는 “분만과 신생아 진료는 산부인과 의료진만으로는 해낼 수 없는 일로, 여러 진료과 간 긴밀한 협업과 협력병원 연계가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이러한 체계를 바탕으로 용인세브란스병원을 찾는 산모와 신생아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고압산소치료실 개소



우리 병원은 최근 고압산소치료실을 개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섰다.

지난달 1일 병원 2층 성형외과 외래에서 진행된 개소식에는 박진오 병원장, 정복기 성형외과장을 비롯한 주요 보직자와 교직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우리 병원 고압산소치료실은 2대의 고압 챔버를 기반으로 운영된다. 또한 전문 교육을 받은 간호사가 상주해 치료 중 환자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관찰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

고압산소치료는 특수 챔버 내부를 일반 대기압보다 높은 압

력으로 유지한 상태에서 고농도 산소를 몸속 깊은 조직까지 전달하는 치료법이다. 이를 통해 손상된 조직의 회복을 돕고, 염증 및 감염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응급 질환으로는 일산화탄소 중독, 감압병, 공기색전증, 중증 연기 흡입 손상 등에 고압산소치료를 적용할 수 있으며, 성형외과 영역에서는 피부이식술·피판술·수지접합술 후 상처 치료, 화상 및 만성 창상 치료 등에 이를 활용하고 있다. 또한 방사선치료 후 발생한 조직괴사, 당뇨병성 족부궤양, 돌발성 난청,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만성 난치성 골수염 등에서도 보조적 치료로 그 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어, 여러 진료과와의 연계를 통한 체계적인 치료가 가능하다.

정복기 과장은 “이번 고압산소치료실 개소를 통해 수술 후 상처 치료, 만성 창상 치료 과정에서 환자의 회복 속도와 치료 결과를 더욱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환자 중심의 통합적 치료 환경을 기반으로, 지역 내 응급 질환 및 난치성 상처 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년도 일반직 관리자 워크숍



지난달 10일 경기도 광주 곤지암리조트에서 ‘리더십의 전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2026년 일반직 관리자 워크숍이 개최됐다.

이번 워크숍은 일반직 관리자의 리더십을 함양하고 조직문

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자리로, 박진오 병원장과 운영전략위원, 일반직 관리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신임 운영위원 소개를 시작으로 홍지만 기획관리실장이 병원 경영현황을 공유하고, 사무행정·간호·진료지원 등 각 분야에서 병원 발전 방향을 발표했다. 발표 이후 진행된 총평과 자유 토론을 통해 참석자들은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인근에 위치한 화담숲을 방문해 자연 속에서 소통하며 부서 간 유대감을 강화했다.

질 향상 활동 및 환자안전 리더 워크숍



지난달 23일 4층 대강당에서 ‘2026년 질 향상(QI) 활동 및 환자안전 리더 워크숍’이 개최됐다.

워크숍에는 박진오 병원장과 손은진 적정진료관리실장, 사전 신청으로 모집한 교육생 등 교직원들이 참석했다.

워크숍은 특강과 QI 활동·환자안전 교육으로 구성됐다. 전병남 백인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의료분쟁 예방 특강을 통해 ‘설명 의무 이행과 법적 책임’을 강의했고, 손민영 QPS파트장은 환자안전 특강으로 ‘더 안전한 병원을 향한 발걸음: 2025년 분석 및 환자안전 강화 플랜’을 발표했다. 교육생들은 특강 이후 부문별로 나누어 교육을 수강했다. QI 활동 교육은 활동 단계 및 도구, 인공지능(AI)을 활용한 QI 보고서 작성법, 활동 실습 등을, 환자안전 활동 교육은 환자안전 개념, 근본원인 분석 툴킷(tool kit) 및 실습 등을 다뤘다. 교육생들은 앞으로 1년간 분기별 환자안전 모니터링 조사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산부인과 박주현 교수, 로봇수술 개인 1,000례 달성

- 의료원 통산 1,600례... 가임력 보존 · 고난도 최소침습술 선도

산부인과 박주현 교수가 최근 로봇수술 단일 술자 1,000례를 달성했다.

박 교수는 다년간 축적한 임상 경험과 술기를 바탕으로 난도 높은 수술을 안정적으로 시행해 온 산부인과 로봇수술 분야의 전문가다. 우리 병원 개원 이전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의 수술 경험을 포함하면 현재까지 총 1,600건의 로봇수술을 집도했다. 현재는 우리 병원 로봇수술위원장을 맡아 다양한 질환에서 로봇수술을 활발히 적용하며 병원의 수술 역량 강화를 이끌고 있다.

박주현 교수는 “개원 이후 처음으로 로봇수술 개인 1,000

례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환자의 신뢰와 경험 많은 의료진 모두의 노력이 더해진 결과”라며 “앞으로도 임상뿐 아니라 교육과 연구에 더욱 집중해 국내 로봇수술 분야의 발전과 치료 성과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심혈관중재학회 경인지회 라이브 시연



3월 20일 3층 심장혈관 촬영실에서 ‘2026년 제4회 대한 심혈관중재학회 경인지회 Live Case Demonstration’이

개최됐다.

‘복잡 관상동맥, 대동맥 및 말초혈관 중재시술’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라이브 시연에는 국내 주요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의 심혈관 중재시술 전문의들이 대거 참여해 최신 치료기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심장내과 교수진은 관상동맥·말초혈관·대동맥 중재술을 집도하고 혈관영상검사를 해석 및 분석하며 우리 병원 심혈관 분야의 우수한 역량을 공유했다.

심장내과 조덕규 교수(심장혈관센터 소장)는 “국내 심혈관 중재술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고난도 심혈관 중재시술을 집도하게 돼 뜻깊다”며 “이번 시연이 국내 심혈관 치료 수준 향상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년도 의약품 부작용 우수 보고 시상



지난달 15일 4층 대강당에서 ‘2025년도 의약품 부작용 우수 보고 부서 및 보고자 시상식’이 진행됐다.

시상식에서는 우수 보고 부서 부문에 약제팀 외래조제파트, 우수 보고자 부문에는 노민혜 간호사(입원간호팀 92병동파트)와 송윤지 약사(약제팀 병실조제파트)가 선정됐다. 각 수상자와 부서에는 상장과 소정의 상금이 수여됐다.

우리 병원은 의약품부작용감시소위원회를 통해 의약품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상사례를 분석하고, 의심 의약품의 인과성 평가 및 관리를 수행함으로써 환자 안전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의약품 이상사례 자발적 보고 문화 정착을 위해 매년 우수 보고자 및 부서를 포상하고 있다.

[섬김과 나눔] 이영은 후원자, 1억원 기부



이영은 후원자가 최근 교수연구동 건축기부금으로 1억원을 기부했다.

이 후원자는 “배우자가 지역사회를 위해 꾸준히 나눔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며 저 역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일에 관심을 갖게 됐다”며 “이번 기부가 용인세브란스병원이 지역 주민의 건강을 위한 역할을 이어가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기부의 의미를 전했다.

한편 이영은 후원자의 배우자인 한재현 용인라이온스클럽 회장은 지난해 4월 우리 병원 교수연구동 건축기부금으로 1억원을 기부한 바 있다.

가정의 달 기념 행사



지난달 29일 1층 로비에서 가정의 달인 5월을 앞두고 외래·입원 환자와 가족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한 기념 행사가 진행됐다.

행사에는 조덕규 2부원장을 비롯한 병원 관계자와 후원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를 위해 준비된 선물은 병동과 외래 내원 환자에게 전달됐다. 선물은 토이리베, 높



은뜻하늘교회, (주)산중합건설, (주)동우화학, ISLA Global, 심플리홈, 용세사돈클럽 등이 후원했다.

한편, 올해는 도미노피자가 처음으로 후원에 동참해, 1층 야외에서 진행된 룰렛 이벤트에 참여한 어린이 40명에게 피자를 제공했다.



입원의학과 임상강사 프로그램 개설

우리 병원은 국내 최초로 입원의학(Hospital Medicine) 분야 임상강사(Fellow)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모집을 시작했다.

프로그램은 입원의학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교육·연구·임상 통합형 과정으로 구성된다. 임상강사는 입원 환자 진료 전 과정에 참여하며, 환자 안전 및 의료질 향

상 활동, 임상 연구,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수행하게 된다. 경태영 입원의학과장은 “이번 임상강사 프로그램은 단순한 진료 경험을 넘어 교육과 연구 역량을 함께 갖춘 입원의학 분야 전문가로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체계적인 전문 인력 양성 체계를 통해 앞으로도 국내 입원의학 발전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외과부 노승윤 교수, 두산연강 간담체외과학술상 수상

외과부(간담체) 노승윤 교수가 3월 27일 하얏트 리젠시 인천에서 열린 ‘제4회 두산연강 간담체외과학술상 시상식’에서 학술상을 수상했다.

노 교수는 ‘단순 간 낭종의 진단, 치료 및 예후: 임상 진료 지침’ 논문을 통해 국내 간 낭종(물혹)에 대한 체계적인 진료 기준이 부재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임상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표준 진료 지침을 제시해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노 교수는 “이번 수상은 진료 지침 수립을 위해 함께 힘써 주신 간담체외과학회 진료지침위원님들과 위원장이셨던 이남준 교수님의 업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환자 치

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연구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두산연강 간담체외과학술상은 두산연강재단이 한국 간담체외과학의 발전과 해당 분야 외과의들의 연구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제정한 상으로, 연구 성과와 임상적 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여한다.



외과부(간담체)
노승윤 교수

신규 협력 의사 소개

우리 병원은 지역 의료의 질 향상과 주민의 건강 증진을 목표로 견고한 진료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협력병원 및 협력의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4월 기준, 협력의사 2,096명과 협력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병의원명	의사	병의원명	의사
강남세련여성의원	이효련	연세뉴하트내과	김성애
광교위드유외과	장지수	응봉병원	김덕수
광주미래의원	김성모	이정민내과	이정민
구트병원	김상훈	이해깊은 정신건강의학과의원	박창중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	박기원	인천퍼스트안과	박종서
다건연세내과의원	이정환	잠실연세 정신건강의학과	이덕중
리&홍외과의원	이원	고귀한이비인후과	이정규
사)한국건강관리협회건강증진의원	백창기	팬택미영영상의학과의원	윤영자
삼성연합의원	이기만	한울성모내과	김민영
새로운성형외과의원	신익선	후내과의원	강수정
서남병원	이주영		장윤희
서울바른신경외과	이용준		고성민
서울삼성내과	고성민		송선춘
서울한양정형외과의원	나정옥		김대영
수원도담외과의원	김원중		임은선
연서정형외과	장진대		임경숙

기부금 모금 현황

YMIC(교수연구동) 건축기부금	
누적 모금액	20억 4572만원
전체 목표 금액 (2024.7.-2027.7.)	50억(달성률 42.9%)

2026년 4월 후원 소식(4.23. 기준)

1000만원 이상 기부

- | | |
|--|---|
| 병원 발전기부금
- 남동발 세무법인 중부 세무사 5000만원
- 조운형 세화이앤씨 회장 5000만원
- 이한철 후원자 2000만원
소화기내과 발전기부금
- 구영석 연세우리내과의원 원장 1500만원 | 암센터 건축기부금
- 김기석 에스와이㈜ 회장 5000만원
- 김태훈 연세김내과의원 원장 1000만원
유방외과 발전기부금
- 이가람 후원자 1000만원 |
|--|---|

1000만원 미만 기부

- | | |
|--|---|
| 간호국 발전기부금
- 한별 후원자
디지털혁신 발전기부금
- 윤석관 후원자
병원 발전기부금
- 용인(주)부정단협의회
- 염호영 후원자
- 박근애 후원자
- 최유필 후원자
암센터 건축기부금
- 하동운 후원자
- 김태양 후원자
교수연구동 건축기부금
- 장성구 후원자
- 박연빈 후원자 | 소아청소년과 발전기부금
- 기독교대한감리회포곡교회
- 정종훈 후원자
- 박형민 후원자
신경과 발전기부금
- 염호영 후원자
- 한인철 후원자
심장내과 발전기부금
- 구지현 후원자
이비인후과 발전기부금
- 김은서 후원자
정신건강의학과 발전기부금
- 기수진 후원자
정형외과 발전기부금
- 염호영 후원자 |
|--|---|

일반 후원




온라인 모금 플랫폼 이용
(QR코드 스캔)

교직원 급여공제

- 그룹웨어 로그인
- 'ESS' 메뉴 → '재무/급여' 메뉴 → '기부금' 메뉴 → '기부금 급여공제' 클릭
- '신규후원' 클릭
- 기부항목 조회 및 선택
- 공제금액, 기간 선택 후 '신청' 클릭

후원계좌 직접 입금, 현물 기부 등의 기부 방법은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yonginpm@yuhs.ac / 031-5189-8209



 진료 예약 1899-1004	 건강검진 예약 1899-1565	 공식 인스타그램	 공식 유튜브	 진료협력센터
---	---	---	--	--

미션·비전·실행 전략

미션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류를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

비전
아시아 중심 병원

디지털 혁신

디지털 혁신을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미래지향적 의료생태계 구축을 선도한다

안전과 공감

고객과 교직원의 안전을 최우선하며 공감을 통해 신뢰받는 병원이 된다

하나의 세브란스

세브란스의 명성과 전문성을 이어받아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